

광주시, 주민 요구 영광·함평서 군공항 이전 설명회

내일 영광·8일 함평서 설명회 사업 필요성·절차·지원내용 등 특별법 통과 기대감도 주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2월 동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남 일부 지역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특히 설명회가 주민 요구로 열린다는 점에서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시설로 각인됐던 군공항을 '미래 먹거리'로 활용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 근거 등이 담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이달 중

통과되면 군공항 이전 설명회도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7일 영광예술의전당에서 영광군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영광은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는 아니지만 인접한 함평에서 지난해 11월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리자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영광 염산면청년회는 지난해 선언문을 통해 "광주 군공항이 함평으로 이전하면 함평 지역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고, 영광은 피해만 본다"며 "주민설명회는 찬성과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투명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다소 적극적인 함평에서는 오는 8일 대동면사무소에서 두 번째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방부가 참여해 △군공항 이전 사업 필요성 △절차와 기준 등을 설명하고 광주시는 △이전 관련 지원 내용 △보상 절차 등을 설명한다. 이어 참석한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지난 2016년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지적정보 이후 6년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최근들어 잇따르게 된 데에는 '인구소멸' 등의 절박함 속에서 여야 의원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에 대한 협력의지를 보여준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광주 군공항 관련 법안은 지난해 11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지난해 대구와 광주가 동시에 명기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27일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정부, 여야 정치권,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갑)은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조율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 갑) 또한 "기부 대 앙여를 기본으로 하

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기재부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은 것이 의미가 있었다"며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공항 이전에 관한 기존 법에 있는 장치들을 특별법이 활용하는 데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경수 광주시 군공항이전지원팀장은 "함평의 경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업 내용도 들어보자'는 분위기에서 설명회가 시작된 것이 인접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다"며 "군공항 이전이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 먹거리'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용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지 기자

광주시, 지하철 2호선 2단계 사업 본격화

2호선 건설 사업계획 변경 공고 올 하반기 착공... 2029년 개통

광주시가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 준비 절차를 들어갔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공고·공람 절차를 밟고 있다.

2호선 건설사업은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나뉜다.

2019년 착공에 들어간 1단계 사업은 서구 유촌동~북구 중흥동까지며,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토목공사 공정률은 50% 수준이다.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 공사 진행과 함께 광주시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북구 중흥동~서구 유촌동까지의 2단계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공고·공람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친 뒤 국토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으면 늦어도 올 하반기 2단계 사업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2호선에 투입할 차량 제작에도 들어간다.

2호선 차량 규모는 36편성 72량(1편성 2량·3단계 구간 포함)이다. 차량은 고무차륜(바퀴)의 경량 전철이다. 최대 속도는 70km/h, 탑승인원은 1편성 객차 2대에 153명이다.

2026년 개통하는 1단계 구간의 운행거리는 17km, 2029년 선 보일 2단계 구간의 운행거리는 20km이다.

1단계 구간에는 15편성 30량, 2단계 구간에는 18편성 36량의 전철을 투입할 예정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5시30분부터 자정까지다. 운행 간격은 출퇴근시간대 4분, 평시 9분이다. 운행 방식은 관제실에서 차량운행을 실시간 감시·제어하는 자동운전 방식이다.

광주시는 우선 1단계 구간에 투입할 차량 제작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지 기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노관규 순천시장,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난 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전남

도민의 화합과 정원문화 중심지 도약을 위해 박람회장 내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봄업(UP) 페스타' 행사에서 내빈들과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속도

내달 설계 공모... 2026년 개관

광주시가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에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모든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절차를 밟아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기본계획에 따른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중앙 투자심사, 도시계획심의, 공공건축기획 심의 등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1월말 완료했다.

이에 3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2024년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제도를 도입해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착공에 들어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호남권 대표 마이스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가동률 70% 이상의 포화상태로 대형 국제 마이스 행사 유치에 전시장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제2전시장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주차장 부지(1만8932㎡)에 총 14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4만6000㎡ 규모로, 9000㎡의 전시장과 회의실을 갖춘 계획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전시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스마트 전시장으로, 제1전시장과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광주지역 대표 랜드마크 건축물로 문화·예술·관광과 마이스 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시설로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제2전시장이 건립되면 기존 제1전시장을 포함해 국제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2만㎡를 확보하게 돼 다양한 전시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컨벤션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성배 관광도시과장은 "제2전시장이 건립되면 국내외 대규모 전시사업을 유치해 글로벌 마이스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전남도, 스마트 청년 농업인 1만명 육성 순항

스마트팜 기술 소득 연결 6월까지 매출 12억 목표

전남 농업 100년을 이끌 '스마트 청년 농업인' 1만명 육성이 순항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소득 창출이 시작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준공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습득해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팜은 온실을 비롯해 모든 작물

관리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이뤄지는 첨단농업 시스템을 말한다.

고흥 스마트팜에는 지난해 실습 중심의 창업보육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교육생 11명(4팀)이 입주했다.

이들은 임대형팜에 첫 입주해 토마토 400톤 수확을 목표로 1만9200㎡(5800평) 온실에 대추방울토마토 1만2000그루(1팀), 완숙 토마토 3만6000그루(3팀)를 정식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첫 수확을 시작으로 올해 1월 현재까지 150톤을 생산·판매해

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팀별로 광주원예농협 등 유통거래처를 마련해 개별 납품하고 있으며, 6월까지 매출액 12억원을 목표로 주 2~3회 수확할 예정이다.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스마트팜을 '1인 기준, 연간 45만8000만원'만 부담하면 최정 3년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오는 2월 중 임대형팜 입주 관련 설명회 등을 통해 추진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4~7월에는 스마트팜 창업보육 4기 교육생 52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최황지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선거 선거정보 및 QnA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공보를 미리 제작할 수 있나요?

A. 선거공보 사전 제작행위 등 입후보를 준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의 정의

- ▶ 선거운동: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 주체: 후보자
 - ※ 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사람
- ▶ 기간: 선거운동기간(2023. 2. 23. ~ 3. 7.)

전남선거관리위원회 * 全南日報 <85719>
▶ 전남선거관리에서 12월에 걸쳐 제공하는 기획연재 보도입니다.